



痰飲病證 考論

學術 弘報委員 李 麟 星
(사거리 한약방)



■ 차례

一. 緒論

二. 痰飲의 病症

- * 痰病證의 對比表
- * 飲病證 對比表

三. 痰病 飲病 解說

- | | |
|------------------|-------------|
| (1) 風痰 | (2) 熱痰 |
| (3) 痰火 | (4) 寒痰 |
| (5) 燥痰(氣, 鬱, 頑痰) | (6) 濕痰 |
| (7) 痰積 | (8) 食痰(食積痰) |
| (9) 伏痰 | (10) 酒痰 |
| (11) 驚痰 | (12) 痰飲(水飲) |
| (13) 留痰 | (14) 溢飲 |

- | | |
|-----------|---------|
| (15) 懸飲 | (16) 支飲 |
| (17) 伏飲 | (18) 癖飲 |
| (19) 痰包 | (20) 痰核 |
| (21) 痰疔 | (22) 流注 |
| (23) 痰迷心竅 | |

* 因痰飲 誘發病症 照見表

四. 痰飲證 病源 鑑別

五. 隨症 治法例

- * 治法 大論
- * 簡要 隨症 治例

六. 考察

七. 結論

- * 痰飲要症
- * 代表方 解說
- (1) 導痰湯 解說
- (2) 二陳湯 解說
- (3) 芎夏湯 解說
- (4) 通順散 解說
- (5) 正傳加味二陳湯 解說

一. 緒 論

삼수(三水)에 말하기를 수 많은 病中에 痰飲으로 誘發된 病症이 90%나 된다고 한 것을 보면 痰飲이 얼마나 무서운 病源인지 再三 考察하여 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入門에서도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氣血의 不調和가 萬病을 發生시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痰으로 因하여 發病하는 率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注意를 喚起하고 있다.

때문에 본 稿에서는 10病中 8, 9나 된다는 이 痰飲病에 對해서 高찰하여 보고자 한다

氣血이 不順하여 津液이 釀成되므로 痰涎이 되는데 이 痰病을 內傷과 外感으로 區分하고 있다. 痰이란 津液의 異名이기도 하여 좋은 作用에서는 몸을 녹여주고 營養하지만 風寒濕熱이 盛하거나 七情飲食으로 鬱하게 되면 氣가 逆하여 液濁으로 變盛하고 따라서 多量の 稀점한 汁으로 化하는 것이다

痰으로 因한 모든 病症을 總稱 痰飲病이라 하는데 稠濁한 것을 痰이라 하고 清稀한 것을 飲이라 한다 “痰”이란 呼吸經絡에 分泌되는 病理性的 產物을 指稱하고 또는 或種의 病變한 機關의 組織內에 貯留한 粘液性的 物質을 包含하여 말하기도 하며 “飲”이란 水와 같은 意味로서 水飲이 일으키는 疾病을 말한다

病으로 因하여 生成된 痰證은 大體로 風痰, 熱痰, 寒痰, 燥痰, 濕痰 등이 있고, 痰으로 인하여 生成된 病證은 대체로 痰飲, 痰火, 痰包, 痰核, 痰核, 頑痰, 宿痰, 伏痰 등으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飲病은 金匱에서는 痰飲 懸飲 溢飲 支飲 등 四飲만을 들고 있으나 寶鑑에서는 여기에 留飲 癖飲 流飲 伏飲을 포함하여 八飲으로 擴大하고 있는데 이 飲病은 모두 飲酒後 冒寒이나 飲水過多所致라고 原因을 말하고 있다

痰飲을 略言하면 廣義와 狹義의 두 가지로 分類한다

1) 廣義의 痰飲 多種類의 水飲病의 總稱이다 體內의 水液이 順調롭게 運輸되지 않아서 體腔, 四肢 등에 停滯하는 類의 疾病을 가리키니 그 原因의 대개는 脾肺腎의 機能 失調와 關係가 있어 서로 影響을 미치고 특히 脾陽의 運化機能을 喪失하고 三焦의 氣化가 障害되어 水飲으로 化하여 停滯하는 것이 주요 原因이다

2) 狹義의 痰飲 水飲病의 일종으로서 이를 다시 虛證과 實證으로 分類한다

① 虛證 · 胸脇部와 四肢가 膨滿하고 腕部振水飲 吐涎沫 目眩 心悸 喘息과 身體가 瘦瘠하

■ 학 술

니 이것은 脾腎의 陽이 虛하여 水穀이 運化되지 않고 水飲이 胃腸에 散在하므로 생긴 것이니 幽門이 막혀서 생기는 胃저類와 類似하다.

② 實證 · 주로 胃脘部가 단단하고 膨滿하다 腹이 痛하면서 瀉하며 瀉後에는 조금 爽快하지만 胃脘部는 다시 딱딱하고 膨滿해진다 水液이 腹中에 遊動하면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水飲이 胃腸에 留伏하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痰으로 인하여 病이 誘發하였거나 飲으로 인하여 病이 誘發한 것은 불문하고 모두다 肺, 脾와 상당히 密接한 病理關係가 있다는 것을 먼저 熟知할 것이니 그 이유는 六淫(風寒暑濕燥火)의 病邪가 肺를 침범하면 痰이 생기게 되고 또 脾陽이 허약하여서 水濕이 停滯하여 貯留하여도 亦是 痰이 생기게 되니 이른바 “脾胃生痰之源이요 肺爲貯痰之器”라는 說이다

痰의 病理는 어떠한가 살펴보면

- ㉠ 風痰이 出沒하면 麻痺나 癱症이 생긴다
- ㉡ 痰濁은 氣를 따라 昇降하여 어느 한 곳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 ㉢ 痰濁이 上昇하여 侵入하면 心悸 眩暈이 생긴다
- ㉣ 痰濕이 上昇하여 脂出하면 惡心 嘔吐가 생긴다
- ㉤ 痰이 心孔에 迷入하면 眼盲하거나 癲癇病이 생긴다
- ㉥ 痰이 胸肋部에 停滯하면 胸苦 胸痛, 喘咳 등의 고통이 따르고
- ㉦ 痰과 火가 결합하면 衄血이 생긴다
- ㉧ 痰이 經絡을 阻害하면 半身不隨가 된다.
- ㉨ 痰이 肌膚에 흐르면 陰疽가 생긴다
- ㉩ 痰이 關節에 注入되면 鶴膝病이 생긴다
- ㉪ 이외에 많은 難病 奇病들이 關係가 있는 것이다.

二. 痰飲의 病症

王隱君痰論에는 百病이 痰으로 인하여 생성된다고 하고 있다.

痰病이 輕하면 痰色이 稀薄한 靑白色으로 氣味도 無味하나 痰病이 久而重하면 稠痰한 黃濁色으로 不易出하며 시거나 맵거나 비리거나 누리거나 짜거나 쓴맛이 있는 것이다

痰證은 ① 초기에 두통 발열이 나서 外感表證과 類似한 점이 있을 때도 있고 ② 오래되면 潮熱 咳嗽하며 病이 夜重하여 內傷陰火와 類似한 점이 있게 되고 ③ 또는 流注하며 肢節이

痛하여 風證과 類似한 점이 있는 것이다

이상 세가지 類似한 점이 있으나 다만 痰證은 胸滿하여 食減하여도 肌色이 如故하여 얼굴이 그대로이니 雜病과 區別할 것이다. 또한 痰病은 脈이 滑하여 不勻하고 不定한 것이 다른 것이다.

아래에서 痰病과 飲病에 대해서 名其 病症을 對比하여 照見하여 보기로 하거니와 痰病有十이라 하기도 하고 飲病有四, 혹은 有八, 혹은 有五라고 하는 등 同病異名도 있고 異名同病도 있는 등 그 分類가 確然하지 않았으나 그런대로 對比하여 보니 그 분류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 治療의 원칙만 理解하면 되라라고 생각된다 論에도 痰飲有五라 하나 그 원인은 하나이니 汗, 吐, 下, 溫法의 運用에 錯誤만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飲病證 對比表

番	病名	症狀及代表方	備考
①	留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胸中有留飲其人短氣而渴四肢歷節痛脈沈細 * 水停心下背冷如手掌大脇痛引缺盆咳嗽轉甚 * 久則令人骨節蹉跎恐爲癰瘤宜導痰湯芎夏湯 	不易治
②	癖飲	水癖在兩脇下動搖有聲宜十棗湯	
③	痰飲	其人素盛今瘦水走腸間漑漑有聲宜苓桂朮甘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而輕者形色青白稀薄氣味亦淡 * 久而重者黃濁稠粘凝結各之難出漸成惡味酸, 辣, 腥, 酢, 鹹, 苦味甚則帶血而出 * (初症頭痛發熱類外感表症久則潮熱咳嗽夜重) 	狹義
④	溢飲	飲水流行歸於四肢當汗出而不汗出身體疼痛宜小青龍湯	心臟腎炎水腫類
⑤	懸飲 (流飲)	飲後水流在脇下咳睡引痛宜十棗湯 流飲水在脇間動搖灑灑之聲(滲出性胸膜炎類)	流飲同一
⑥	支飲	咳逆倚息短氣不得臥(喘而不能臥)其形如腫宜小青龍湯	慢性肺氣腫類
⑦	伏飲	膈上痰滿喘咳或吐發則寒熱背痛腰痛目淚自出其人振振身全劇必有伏飲	
字句義解		(漑漑) 꾸르륵 꾸르륵 또는 꿀렁꿀렁 나는 소리(痰飲中)	
		(灑灑) 물이 조용히 흐르는 소리 스며드는 소리(懸飲中)	

痰病證 對比表

番	病名	症 狀 及 代 表 方	備 考
①	風痰	脈弦 面青 肢脇滿悶 脇肋脹痛 ㄷㄷ麻木 ㄷㄷ奇證 便秘秘ㄷ 時有躁怒 痰青而多泡 (乃濕在肝經所致) 宜 十味導痰湯 * 因外感風而與痰相撲 致見頭風 眩亂 暗風 悶亂 或 ㄷㄷ眼目ㄷ動 昏澁 耳輪瘙痒 多ㄷㄷ奇證 宜 青州白丸子	
②	熱痰 (火痰)	脈洪 面赤 煩熱心痛 口舌乾唇燥 時多喜笑 癲癇 發狂 痰成塊而黃色 (乃濕在心經所致) 宜 涼膈散 加 半夏 芩芩 * 頭面烘熱 多煩熱 燥結 或 眼爛喉閉 癲狂 ㄷㄷ 懊ㄷ ㄷㄷ 怪奇夢 宜 清熱導痰湯 大調中湯	即火痰 及痰火同類
③	寒痰 (冷痰)	脈沈 面黑 小便急痛 足寒而逆 足膝酸軟 腰背強痛 肢節冷痺 心多恐怖 痰色稀白 或有黑點 (乃痰在腎經所致) 宜 桂苓丸 (肉桂 100, 芩芩 200 爲末蜜丸 重 20 每 1丸) 加 澤瀉 車前子 * 骨痺 骨痛 四肢不舉 氣刺痛 無煩熱 凝結 清冷	即冷痰 虛痰也
④	燥痰 老痰 鬱痰	脈澁 梅核症 面白 氣上喘促 灑灑寒熱 悲愁不樂 痰澁而難出 或如米粒 ㄷ亮而少 或乾嘔 (鼻在肺經所致) * 脈沈滯而滑 火痰鬱於心肺之間 久則凝滯胸膈 稠粘難ㄷ 多毛焦而色白如枯骨 咽乾 口燥 咳嗽喘促 宜 瓜蒌枳實湯	即老痰 鬱痰也
⑤	濕痰	脈緩 面黃肢體沉重 ㄷ臥不收 腹腸食滯泄瀉 痰滑而易出 色白而多 (乃濕在肺經所致) 宜 祛濕痰湯 二陳湯 加 二朮 * 身重而軟 倦怠 困弱 宜 神朮丸	即痰濁也
⑥	氣痰	梅核症 七情鬱結 痰滯咽喉 形如 敗絮 胸膈閉而痛 宜 加味 四七湯 正傳加味二陳湯 又云 前胸部 良性腫瘍	燥痰, 鬱痰同類
⑦	食痰	因飲食不消 或挾瘀血 遂成斗囊 多爲癖塊 ㄷ滿 宜 正傳加味二陳湯 (胃潰瘍 胃炎 胃下垂 ㄷ 類似)	即食積痰也
⑧	酒痰	因飲酒不消 或酒後多飲多水 但得酒次日又吐 飲食不美 嘔吐酸水 暖氣 臂痛 脇痛 宜 小調中湯 加味對金飲子	
⑨	驚痰	因驚 痰結成塊 在胸腹 發則躁動 痛不加忍 或成癲癇 婦人多有之 宜 炒應丹	
⑩	痰火	勞思傷神 嗜慾傷精 精髓枯立於下 飲食不節 濃厚之味 釀爲痰火而鬱於上 有形之痰 無形之火 交相固結 平居無恙 之時 貯蓄斗囊之中 時有觸發 則衝膈透膜 如潮水之泛濫	即火痰症狀
⑪	痰塊	人身上中下有塊如腫毒 多在皮裏膜外 此因濕痰流注 作核不散故也	
⑫	痰厥	厥之由於痰者 寒痰迷心 遂道不行 四肢厥冷 ㄷ付卒倒 嘔吐涎沫 不省人事 宜 導痰湯 星香正氣散 * 內虛受寒 痰氣阻塞 手足厥冷 麻痺昏倒 脈沈細	
⑬	痰結	梅核症狀으로 老痰이니 飲酒人에 多有之 喉間腫大 形似ㄷ異 忽痛忽止 外現五色 接之半空	氣痰燥痰同類
⑭	伏痰	* 別金 解說	宿痰同一

三. 痰病 飲病 解説

(1) 風痰 風邪에 의해서 發生된 痰病을 말한다 左右側 半身不隨가 오며 頭風 眩暈 悶亂 혹니 寸動等症이 隨伴되고 痰色은 靑色으로 나타난다

一般 風證이나 같은 病症으로 眼目이 牽引되고 口脣이 破裂하고 手足이 振도되며 伸縮하는 등의 症狀이 있으면 風痰치라고 부른다

(2) 熱痰 . 火痰 煩熱 燥結 頭面熱 眼爛 喉閉 癲狂 俠腫 조잡 정충 痰 黃色의 증상이 나타나며 열이 심하면 痰黑色을 띄고 血唾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3) 痰火 (熱痰 火痰 同類) 두가지로 分類한다.

① 無形의 火와 有形의 痰이 조려져서 粘着하고, 肺에 貯藏되는 病症이니 소위 “과囊之痰”(또는 囊中の痰)을 가리킨다 평소에는 顯著한 症狀이 없으나 外邪, 혹은 음식 內傷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작이 일어난다 그 症狀은 哮喘과 恰似하고 煩熱하고 胸痛이 있으며 口脣이 乾燥하고 痰塊가 잘 나오지 않는 등이다.

② 頸部 耳後에 念珠樣의 痰核이 생기거나 腋下에 核이 생기는 증상이다. 이 核을 누르면 단단하고 밀어도 移動하지 않고, 舌狀은 舌紅 苔黃하며 脈狀은 弦滑 數 등으로 나타난다 肝火, 痰鬱로 발생하므로 痰火라한다

痰火에는 玉竹飲子 沈香降氣湯 七氣湯 六味地黃湯을 加減하여 사용한다

(4) 寒痰 痰質이 透明하고 흰것을 특징으로 한다 風寒을 外感하여 發病하는 것은 반드시 惡寒 發熱 頭痛 咽痒 咳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脾腎虛寒에 의해서 생기는 惡寒 四肢의 冷(足寒而逆) 小便急痛 心多恐怖 精神的 疲勞 納呆 脈沈緩의 症狀을 나타낸다 加減桂苓丸 二陳湯加 乾薑 肉桂하여 쓴다

(5) 燥痰 痰質은 짙고 粘稠하며 양은 적다 가는 사狀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입, 귀가 건조하며 痰이 나오기 힘들다 咽痛하고 脈은 細數하다

× 氣痰, 鬱痰 同類 梅核症으로서 七情이 鬱結하여 痰이 咽喉에 막혀 形狀이 敗絮같고 胸膈이 비閉하여 痛하는 증상이 오는 것이며 또는 前胸部에 良性이지만 腫瘍이 생기는 것도 있다

× 頑痰 역시 同類로 보아진다 頑固하여 낫기 힘든 痰症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喘息의 發作이 反復되거나 痰飲이 질질 끌어 잘 낫지 않는 病症은 頑痰이 胸膈에 殘留하여 생기는

▣ 학 술

것으로 보는 것이다.

(6) 濕痰 . 濕濁이 장기간 체내에 停滯되어서 생기는 痰 이를 “痰濕” “痰濁”이라고도 한다. 이 병은 脾가 虛하기 때문에 水濕을 運化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津液을 輸送配布하지 못해서 정체하여 內濕이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痰飲이 된다 臨床上의 표현은 痰이 많고 稀白하며 胸苦 惡心 喘咳가 있고 舌腫 苔滑한 것이다. 처방은 二陳湯에 加 二朮하거나 挾虛하면 六君子湯加減 한다

(7) 痰積 胸膈이 비만微痛하고 痰涎難出하며 鼻汁과 唾는 粘稠하며 들이마시면 막히고 頭暈 目眩하며 腹中에 凝固物이 생긴다 痰이 阻止되고 氣가 停滯하며 濕濁이 胸膈에 凝集하여 생긴다. 咽門으로 부터 胃脘까지 窄狹如線하고 腹中루루成塊하는 症狀이 생기기도 한다 開氣消痰湯 등을 쓴다.

(8) 食痰(食積痰) : 飲食이 소화되지 않거나 또는 瘀血을 兼하여 疝氣가 되었거나 癥塊비滿症에 口出臭氣 或成疝痢라 하였다.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症이다. 疝氣는 痰火 症에서도 보인다 食痰에는 保和丸을 쓴다

(9) 伏痰(宿痰) : 水飲이 內熱에 의해서 다려져서 痰이 되는 것을 가리키며 비교적 오랫동안 蟄居하여서 停滯하고 있으므로 伏痰이라 하는 것이다. 便宜上 頑痰을 燥痰의 同類로 하였으나 이 伏痰과도 同類로 보인다

伏痰과 伏飲은 意義上 기본적으로 같으나 飲은 대개 胸腹部나 四肢에 潛伏하고 있으며 水腫이나 胸腹腔內的 液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서 痰은 全身의 모든 곳에 潛伏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咯痰症狀의 疾病外에 예를 들면 癲癇, 또는 몇개의 關節의 病과 淋色腺肥大的 病症 등은 辨證施治로 볼 때 伏飲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10) 酒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의 病症이니 飲食은 먹지 않고 술만 먹어서 토하고 트립하고 어깨 옆구리 부분이 아프다고 하는 증상이다 對金飲子에 加用하거나 小調中湯 妙應丸을 사용한다

(11) 驚痰 놀란 일이 많아서 胸腹中에 痰結塊가 생겨 시시로 躁動하고 痛症이 극심하여 참기 어려운 지경이 된다 婦人에게 많다고 하였다 產後나 또는 月事未淨時에 交接하면 驚氣가 乘虛而入하여 結爲痰塊하며 停於腹部하다가 發則 轉動跳躍하여 痛不可忍하게 되니 控涎丹에 朱砂 全蝎을 加用한다고 있다

(12) 痰飲 水毒으로 기인된 疾患을 總稱한 代名詞 또는 體內的 津液이 變해서 초래되는 병이다 혹은 胃腸內的 停水가 腸胃에 停留하여 渾渾有聲하게 되며 그 사람이 갑자기 浮肥(肥滿)하거나 갑자기 瘦瘠하여지며 胸脇이 支滿하고 目이 眩하는 증상이 온다

× 水飲 · 水飲은 臟腑의 病理變化 課程中에서 생성되는 滲出液을 말한다 水와 飲의 구별은 희박하고 증명한 것을 水라 하고 희박하고 粘稠한 것을 飲이라 하는데 名實이 다르므로 항상 水飲으로 併稱한다.

(13) 留飲 오랫동안 貯留하고 흐르지 않는 水飲을 가리킨다 모두 中焦脾胃의 陽虛에 의해 陽虛機能이 상실되고 津液이 凝滯하므로서 생긴다 主要症狀은 口渴 四肢關節이 倦怠롭고 아프고 背部에 冷을 느낀다 呼吸促迫하고 脈은 沈하다 脾胃의 陽氣가 회복되지 않으면 낡은 飲이 排泄되어도 새로운 飲이 다시 滯留하므로 오래 걸리고 낫기 힘들다.

(14) 溢飲 · 水液이 體表 및 皮下組織에 滯留하는 것을 가리키고 보통의 水氣病과 같다. 주로 신체의 동통 사지의 부종, 沈重 喘咳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현대의 心臟病水腫 腎炎水腫 등과 유사하다

(15) 懸飲 · 水飲이 脇肋部에 貯留하는 것을 가리킨다 水飲이 위로는 胸中에 없고 아래로는 腹中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이 이름이 있다 주 증상은 脇下가 膨滿하고 불쾌, 도는 약간의 부기를 볼 수 있고 기침하거나 침을 뱉을 때 兩脇이 당기는 것처럼 아프고 脈은 沈弦狀이다 重證은 기침이 심하며 胸脇部가 비만하고 아프고 이것이 銷骨上窩에 미치고 乾嘔 短氣 頭痛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데 현대의 滲出性胸膜炎과 유사하다

(16) 支飲 痰飲 水氣가 胸膈部, 胃脘部에 停滯하는 病症을 가리킨다 肺氣가 上迫되어 肺가 肅降機能을 상실하고 氣機의 昇降이 阻止됨으로서 胸膈不利가 된다 主症은 喘咳上逆에 胸이 膨滿하고 呼吸이 促迫하다 무엇에 기대서서 휴식하고 橫臥不可能狀態 등이며 심할 때는 浮腫이 있다. 慢性的 肺氣腫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肺心病 등의 疾病과 유사하다

(17) 伏飲 痰飲이 體內에 潛伏하고 항상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증상은 허리 등이 나른하고 아프다 惡寒發熱 腰背痛 目淚出 胸膈脹滿 咳嗽 嘔吐하고 심하면 눈물이 자연이 나오고 전신이 떨리는 증상이 온다. 宜 倍朮丸 加茯苓 半夏한다

(18) 癖飲 · 兩脇間에 痰飲이 體內에 潛伏하고 있는 積塊를 가리킨다. 평소에는 찾아내지 못하나 아프게 되면 비로소 積塊가 있는 것을 느낀다 이는 대부분 飲食不節로 脾胃가 손상되고 寒痰이 結聚하여 氣血이 연결되어 생긴다.

□ 학 술

(19) 痰包 : 舌下에 생기는 일종의 病理性 固體이고 표면은 滑하고 軟하며 外皮는 黃色이고 안에 卵白과 같은 粘液이 있고 局部的으로 麻痺나 痛症을 느낀다 腫大하게 되면 發聲이나 음식을 妨害하게 되는데 이는 痰火가 沫대로 流走하므로 생긴다 外治와 더불어 加味二陳湯을 쓴다

(20) 痰核 (痰塊) 皮膚밑이 붓고 核과 같은 結塊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濕痰이 흘러 모이므로 생긴다 結塊의 수는 일정하지 않고 不紅不腫하며 不便不通한다 만져보면 果核狀인 것이 軟骨移動한다 일반적으로 化膿하지 않고 터지지 않는다 痰核은 거의 頸, 項, 下脘部에 생기나 四肢 肩背部에 생기는 것도 있다 身體上部에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風熱을 兼하고 下部는 濕熱을 겸한다

《原論》 痰飲이 流注於胸背 頭項腋과 腰腿手足하야 聚結腫硬이나 或痛不痛이라 按之無血潮인데 雖或有微紅이나 亦少薄不熱이요 堅如石이나 破之無膿이라 或有薄血하고 或清水 或紫汁이로다 又有壞肉如敗絮하야 或如薄血하고 在皮肉之間하야 如鷄卵이나 加移動 軟骨不硬이로다 惟覺咽喉痰結하야 作寒作熱이라 宜 通順散 加 南星 半夏로다 이외에도 加味二陳湯 消風火痰湯 開氣消痰湯 등이 열거되고 있다

(21) 痰核 夏月에 多食 劑 瓜 果 油 麵하거나 또는 乘涼飲冷하야 鬱結成痰으로 發病된 것이다 증상으로는 多見 寒熱이 不己하고 胸비 嘔吐 頭疼 肉躁하고 심하면 昏迷卒倒하게 되었다. 풀이 하자면 비교적 重한 型的 痰核이다 惡寒發熱이 교대로 일어나며 熱多寒小한다. 두통 眩暈에 痰이 많고 胃氣上逆한다 현대의 腦型痰核에 해당한다 처방은 隨症治療하나 大柴胡湯이나 二陳, 導痰湯에 加減하였다

(22) 痰飲流注(走馬痰=遊走痰腫) . 痰飲은 전신의 어느 곳이나 流注하여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주로 四肢, 胸, 背, 臂部에 많이 나타나지만 腰, 腹部 또는 其外 어디라도 얼마든지 발생한다

《原論》 忽患 胸, 背 手 脚 腰 과隱痛하야 不可忍하고 連筋骨牽引鈞痛하야 坐臥不寧하고 時時走易不定이라 (非走注)

두통 不可舉하고 혹 神意昏倦 多睡하며 혹 飲食無味하고 痰唾稠粘하며 夜間에 喉中 如曳鋸聲하고 多流涎하며 手脚冷痺하야 其脈이 不通이면 非痰涎이니 只服控涎丹이니라

痰飲으로 인한 病症을 審察하여 바르게 찾아내야 할 것이다

(23) 痰迷心竅(痰飲如邪수) 痰飲이 虛한 精氣를 타고 中焦에 머물러 있게 되면 邪수症과 같은 病症이 된다 邪수證이란 소위 넋나간 사람같이 귀신을 보았다는 등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허투루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精神分裂證인데 이런 증상을 잘못 邪수로 치료하게 되면 사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必이 邪수證과 痰迷心竅證과 구별

하여야 한다 처방은 陶氏導痰湯이 나와 있다

아래에 痰飲으로 인하여 야기된 病症을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痰飲이 얼마나 많은 病源인가 보니 놀라울 뿐이다

因痰飲 誘發 病症 照見表

番	部位	症 狀	備考
①	頭面耳目	頭痛 眩暈 目昏 眼旁澀痒 口眼歪動 耳鳴 眉弓耳輪小痒 面如枯骨 毛髮焦乾 有如烟氣 上衝 頭面烘熱	
②	口舌齒	口糜 舌爛 口燥 咽乾 齒痛 齒頰痒痛 牙床浮腫 而痛痒不一	
③	咽喉	咽口不利 咽乾 甚爲喉閉 走馬喉痺 各之不出 噦之不下 或吐各上出 塞於咽喉 出於各吐 色如매태 形如敗絮(흰솜) 桃膠 疝肉之狀	“태” 그으름태
④	呼吸器	喘嗽 短氣 朝咳夜重類內傷 甚爲肺癰	
⑤	胸腹 (消化器)	胸腹間如有二氣交細 열塞 비膈煩悶 凝滯胸膈 留於腸胃 비膈腫痞塞壅 關格不通 胸滿食減 肌色如故 胸脇속속有聲 脇疝癖積成形 腹中作瀉 惡心 嘔吐 冷涎綠水黑汁 甚爲肺癰 嘔열 탄酸 조잡 心下如停冰雪 時作心頭冷痛	
⑥	運動器 (神經痛)	四肢遊風 四肢骨折煩疼疼痛 竝無常所 腫硬 似痛非痛 客於經絡四肢 隨氣升降 遍身上下 無處不到 一肢腫硬麻木 骨節刺痛無常 流注肢節 則疼痛類風痺 脊中每有一掌 如水凍之寒痛者 혼身習習如蟲行者 * 中風탄탄 風痺 脚氣之候 手麻臂痛狀 挫심 腰背卒痛 腰腿산刺無力 足腕산軟 趺跛	
⑦	大小便	腹中作瀉 二便時挾如膿汁之物 腸毒 便膿 大小便閉塞	
⑧	精神神經	夢寐奇怪 夢烟火劍戟叢生 鬼叫之狀 失志 癡狂 狂迷 心下정충 驚悸 如畏人將捕 驚悸 甚至無端見鬼 似崇非崇(精神分裂症類) 風癩	
⑨	全身係	或寒熱 勞瘵荏弱之疾 毛髮焦乾 初期頭痛寒熱 食減 肌色如故	
⑩	外部 (皮膚)	요項結核 似역非역 痰腫(腫瘡) 痛腫 身中結核不紅不腫 頸項成塊 皮間赤腫如火 一掌如水凍之寒痛 혼身習習如蟲行 或一肢麻木	
⑪	婦人	經閉不通 帶下	
⑫	小兒	驚癇 혹익	
⑬	其他	內外之疾 非止百端 皆痰之所致也	
⑭	治大法	先逐去痰涎 然後 看虛實調理 故 製 沈香礞痰丸(通治三焦痰飲之劑也)	

四. 痰飲證 病源 鑑別

- ① 有痰者是 眼皮 及眼下에 必有煙灰黑色이오
- ② 一切 痰證은 食少(胸滿食減)이나 肌色如故하다 (脈滑不勻不定)
- ③ 一切 水證은 脇硬하고 心下에 正충이니라
- ④ 手臂 或動不得하고 或 骨折遍身痛하며 坐臥不寧함은 痰入骨也니라.
- ⑤ 眼黑而行步呻吟하고 舉動艱難者나 遍身骨節疼痛者는 痰入骨痰也니라.
- ⑥ 眼黑而面帶土色하고 四肢위痺하며 屈伸不便者는 風濕痰 所致니라.
- ⑦ 眼黑而 頰赤하거나 或 面黃色者는 熱痰 所致니라
- ⑧ 객담不出者는 脇下痛하며 作寒熱하고 咳嗽氣急함은 痰結也니라
- ⑨ 痰飲流注하야 肢節疼痛함은 類風證이니라.
- ⑩ 痰色이 淸함은 寒痰이오 白함은 濕痰이오 黑함은 火痰이오 黃함은 熱痰이오 膠함은 老痰이니라.

五. 隨證 治法例

治法의 大要는 人삼 감초로 補脾하고 白朮 半夏로 燥濕하고 陳皮 靑皮로 利氣하고 茯苓 澤瀉로 滲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張子和는 飲無補法이라 必當去水故로 用 汗吐下 三法이라고 하였으나 꼭 그러하지 않는 것은 亦有挾寒하고 挾虛之證이며 又有 血氣虧乏之人이니 察之하라고 警戒하기도 하였다

治法 大論에

- ① 熱痰은 淸之할지니 石膏 靑黛 梔子 黃芩 黃連이오
- ② 寒痰은 溫之할지니 倍 半夏하고 乾薑 附子 肉桂 薑汁이라
- ③ 燥痰은 潤之할지니 瓜蒌仁 杏仁 五味子 天花粉이오
- ④ 濕痰은 燥之할지니 蒼朮 白朮 厚朴 茯苓이라.
- ⑤ 風痰은 散之할지니 南星 皂角 白付子 竹역이오
- ⑥ 老痰은 軟之할지니 海石 芒硝 瓜蒌仁 枳殼 便香附子니라
- ⑦ 食積痰은 消之할지니 山楂肉 神曲 麥芽 등이오
- ⑧ 停水에 加 檳榔하고
- ⑨ 痰在脇下에 加 白芥子하고
- ⑩ 痰在四肢에 加 竹역하고.

- ⑪ 痰在皮裏膜外면 加 白芥子 竹역 薑汁하고
- ⑫ 氣實하면 加 형개, 죽력이니라.
- ⑬ 因氣動者 痰氣이니 順氣導痰湯이요
- ⑭ 因火動子 痰火이니 清熱導痰湯이요
- ⑮ 因濕動者 濕痰이니 導痰湯이요 通用 二陳湯이니라.
- ⑯ 脈法 · 飲脈 皆弦 微 沈滑이라 雙弦者는 寒飲이요 偏弦者는 飲이요 沈而弦者는 懸飲이니라

簡要 隨症治例에 論하기를

① 痰火上煽於膈上하야 胸中이 時覺비滿하고 眩暈하며 或目齒疼痛하며 飲食後稍覺爽快라가 少間復加迷悶이라 大便或結或瀉하고 小便或青或赤者는 宜 健脾以運痰하고 清肺而潤燥하리니 六君子湯에 加 瓜蒌仁 竹력 生薑汁하야 用之니라

② 周身痛不可忍하고 筋骨牽引弔痛하며 坐臥不安하야 走易不定이라 頭痛困倦하고 手足重墜 痺冷하고 脈伏者는 涎飲頑痰이 伏於心胸이라 宜 導痰湯 加 羌活 防風 白芷 薑汁 竹역하니라

③ 老痰이 胸膈作비하거나 或流滯於四肢經絡者는 宜 青礬石丸 滾膽丸이니라

④ 痰挾死血하야 隨氣攻注하고 流注刺痛有時라가 得食則止하고 有時得熱轉劇者하니 此는 寒痰阻塞故으로 得熱則止하니라. 若痛久하야 火邪傷血 則得熱轉劇이면 宜 控涎丹 加 胡椒 蝎尾 木香 陵鯉甲이요 痛定時에 用 七氣湯 六君子湯에 竝加竹력하야 相間服하니라

⑤ 思慮過度로 胃中虛寒하야 致飲聚食減者는 局方 七氣湯하니라

⑥ 寒涎沃痰이 時吐痰水하고 不得眠하며 或時眩暈者는 宜 溫膽湯하고 多驚者는 加 蝎尾하니라

⑦ 痰火盛於 上焦로 氣盛喘促하고 有時能食 有時不能食하며 或 周身走痛하야 飽脹비悶者는 宜 滾痰丸이라

⑧ 脾肺氣虛로 不能運化 而生痰者면 六君子湯에 加 桔梗하고.

* 脾氣虛 而生痰者는 宜 理中丸에 加 半夏 복령하고.

* 脾虛挾濕하고 脈來細滑 或緩하며 痰涎은 清薄하고 身體倦怠하며 手足산연者는 六君子湯 或 補中益氣湯 加 半夏 복령하니라.

* 脾臟氣滯 而痰中有血者는 歸脾湯 去 木香 遠志 加 牡丹皮 砂仁하고.

* 肝經血熱 而痰中有血者는 加味逍遙散 去柴胡 生薑하고 加 童便 藕汁하고.

□ 학 술

* 過服寒涼 而 唾痰挾血者는 異功散 加 訶薑이니라.

⑨ 腎虛 不能納氣歸源하야 出而不納 則爲積滯하니 積滯不散 則痰生이라 宜 八味丸이라

* 尺脈浮大나 按則澁하고 氣喘有痰하며 小便赤澁 足근作痛者는 腎氣丸이요, 若腎虛水瀰 爲痰으로 累服 腎氣丸 而無效者는 方中 去 熟地黃 山茱萸 加 沈香 菖蒲이니라

⑩ 痰飲이 流入四肢하야 令人으로 肩背산痛하고 兩手연痺者는 導痰湯 加 薑黃 木香하고 不應하면 加 桂枝하니라

⑪ 痰飲이 結聚腹脇之間하야 有類積聚이나 但 按之 不甚堅 而時時嘔吐涎沫하면 六君子湯 合五苓산 加 枳實하고

⑫ 平居에 無事라가 但有痰數口하야 或清或堅者는 小半夏湯하고 不應이면 加 人蔘하니라

⑬ 痰注腰痛은 動作便有痰하야 或一塊作痛이라 脈이 滑 或 沈伏하리니 導痰湯 加 香附子 烏藥 枳殼하고 脈實者이면 加 大黃하니라

⑭ 痰病이라 하면 風癲狂癘의 總稱이니 모두 그 原因이 痰火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六. 考 察

治療의 常用法은 順氣하는 것과 病理를 구분하여 개통하고 引導하는 것이다 古法에도 順氣로 爲先하고 分導로 次之하라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나 氣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火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 둘 것이다

記錄에 보면 痰飲證에 쓰이는 處方으로 二陳湯加味方 導痰湯加味方 芎夏湯加味方 正傳加味二陳湯加味方 通順散加味方 五積散加減方 瓜蒌枳實湯 四七湯加減方 控涎丹 등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처방들로 되어 있다

便宜上 病症을 분류하고자 여러가지 병명으로 칭하고 있으나 치료에 들어가서는 適宜 隨症治療에 임하면 되는 것이지 병명에 집착하여 중요한 病症을 疏忽이 하여서는 안되리라는 생각이다

上述한 바와같이 痰飲으로 유발된 病症이 十中八九이기 때문에 痰飲病症에 자신있는 運用療法만 터득한다면 과반의 질병은 치료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重要的 痰飲病에 대하여 그 實際臨床을 알아보기로 한다

① 痰飲이란 모두 內虛하여 寒氣를 受하였기 때문에 痰氣가 阻塞하여 手足이 厥冷하고 麻痺하며 暈倒하고 脈은 沈細하게 되는 것이다.

中風 卒倒時에 嘔吐하는 것은 食痰證이니 星香正氣散에 消導劑를 加하여 쓰게 되는 것이니 卒倒患者의 心下를 눌러보면 動悸하면서 劇痛을 호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面赤하면 黃芩 黃連을 加味하여야 한다

食痰證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병증이다 腹中이 遊走痛하며 소화가 되지 않고 瘀血도 있어 腹中에 有塊하고 비만하는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또는 食積여부도 분명치 않으면서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되는 증상도 食痰인 것이다. 現代에서 말하는 胃潰瘍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食痰症에 通用 正傳加味二陳湯인데 少陰人 체질에 더욱 좋다 太陰人도 亦可나 石菖蒲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다만 장복하면 山查肉의 酸味로 因하여 속쓰림症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였다 대학병원에서는 本方에 香砂平胃散을 合方하여 平陳健脾湯이라하여 胃腸病에 多方面으로 걸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食積으로 인하여 碌碌有聲하면 芎夏湯을 合方하는 것 등이다 碌碌有聲時 腹鳴이甚하면 언제나 芎夏湯을 위주로 할 것이다 단 허약인은 加味大補湯(合篇上3)과 合方하라 하였다

正傳加味二陳湯은 痰으로 인한 소화불량뿐 아니라 或 瘀血을 挾하였을 때도 좋다

食積의 脈狀은 右關脈이 반드시 滑하다고 하였다

만일 痰으로 인한 소화불량증이면 六君子湯을 使用할 것이다

또 低酸症일 때는 平陳健脾湯에 烏梅를 加하고 山查肉을 增量할 것이다

이 平陳健脾湯은 腹部의 모든 질환과 원인불명의 복부질환에 다 사용할 수 있으며 患者의 脈狀이 지할 때도 좋다 하였다

〈참고〉 而寒氣에 오래 노출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로하게 되면 雙敗散(人蔘入)이 좋고 氣血이 衰弱하게 되면 雙金湯(雙和湯+不換金正氣散)이 좋다

② 痰病이 邪수證과 유사하여 精神氣運이 왔다갔다하고 虛言을 하는 등 精神分裂症이 되면 心膽이 虛怯한 것이니 陶氏導痰湯이나 加味溫膽湯을 쓰고 精神異常症이면 補心導痰湯을 2~3개월간 長服한다

③ 痰塊로 如栗塊가 皮膚 肌肉之間에 發生하면 二陳湯에 加大黃 連翹 柴胡 桔梗 黃連薑 炒하여 用하고 食道中에 何物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거나 또는 四肢어디에 核物이 있으면 開氣消痰湯을 사용한다

④ 痰飲流注證은 일명 走馬痰이니 控涎丹을 쓰고 湯劑로는 通順散에 加 南星 半夏하여 쓴다

通順散은 용도가 多端하다

□ 학 술

流注로 오는 病症이 다양하여 腰痛이 上下 左右로 痛處가 이동하면 痰飲腰痛이 되고 頸項 肩臂 胸背脇等處도 痛증이 轉移하면 痰飲爲病이요 腹痛도 痛處가 일정하지 않으면 痰飲腹痛이니 전신에 걸쳐 이를 類推할 것이다 이때는 順氣導痰湯 合 芎夏湯이나 正傳加味二陳湯, 通順散加味方 등을 쓰게 된다 流注의 특징은 四肢 背胸脇 肩臂 등 전신을 網羅 流注하게 되나 단 不腫한 것이다

흔히 볼 수 있는 食事途中에 腹痛이 있으면서도 痛處를 구분하지 못하고 腹鳴이 있고 하면 痰飲腹痛인 것이다 肩臂痛이나 胸脇痛 역시 痛處 전이하면 일단 痰飲을 생각할 것이다

⑤ 酒痰症이면 葛根을 위주로 한다. 調中湯이나 對金飲子에 葛根 半夏를 加해 쓴다

⑥ 驚痰症은 놀래서 발생하는 病症으로 화가 많은 女人에게 많은데 上腹部에 꿀꺽꿀꺽하는 上衝氣가 있는 것이다. 控涎丹을 많이 쓴다

⑦ 痰結이란 梅核症이니 消化不良이면 加味 四七湯이요 消化가 양호하면 加味二陳湯을 쓰게 된다. (加味二陳湯 · 加 枳殼 黃芩 桔梗 梔子 蘇子 白荳蔻 殼 07)

⑧ 痰厥이란 內虛로 寒氣를 받아 痰氣가 막힘으로 手足이 冷하고 麻痺가 오며 昏倒 脈沈細 人事不省等症이 오는 것인데 導痰湯이나 星香正氣散을 쓰게 되며 或은 合 蘇子導痰降氣湯한다

⑨ 唾痰을 많이 뱉는 것은 半夏溫肺湯이나 六味湯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 六味湯 合 金水六君煎하기도 한다 이 처방은 老人의 喘息에도 잘 듣는다

七. 結 論

이상에서 痰飲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痰飲爲患이 놀라울 뿐이다. 記錄에 나와 있는 方劑는 不知其數이다 일일이 列舉할 必要를 느끼지도 않고 그럴 必要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본 考論도 筆者의 管見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痰飲研究에 작은 參考라도 되어 졌으면 할 뿐이다

여기서 結論으로 痰飲의 診斷에 必須的인 要症과 代表 處方으로 생각되는 몇가지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痰飲의 要證

- ① 痛症을 呼訴하여도 肌色은 如故하여 病者같지 않다
- ② 痰證은 眼皮나 眼下臉의 皮膚에 烟灰黑色이 나타난다
- ③ 水證은 脇下가 硬하고 心下는 臍中症이 나타난다

- ④ 脈象은 弦, 滑, 洪 또는 沈, 澁, 緩等으로 나타난다
- ⑤ 全身遊注(遊走)疼痛함은 痰飲病이다.
- ⑥ 腰痛, 腹痛, 胸脇肩背痛症도 痛症이 일정하지 않고 轉移함은 痰飲證이다

2 代表方 解説

(1) **導痰湯** 治 痰涎壅盛 胸膈留飲 咳嗽惡心 發熱背寒 飲食少思 中風痰盛 語澁眩暈 及 風痰 火喘(小兒 痰喘) 小便不通 背痛 不妊症(肥滿者) 痰厥

① 通用方(風痰 寒痰 濕痰 鬱痰을 구분하지 않는다)加 香附子 烏藥 羌活 白朮 防風 黃芩 木香 桔梗 白芥子 白付子 竹茹한다

② 清熱導痰湯 加 黃連 黃芩하여 熱痰證을 治한다

③ 祛風導痰湯 加 羌活 白朮 防風 竹瀝 薑汁하여 類中風 筋脈전도를 治한다.

④ 寧神導痰湯 加 遠志 石菖蒲 黃連 黃芩 朱砂하여 因怒者의 癲癇을 治한다

⑤ 滌痰湯 · 加 人蔘 石菖蒲 竹茹하여 類中風 痰迷心竅 舌強不能言을 治한다.

⑥ 導痰君子湯 加 白朮 白付子 全蝎하고 倍人蔘하여 中風 痰盛을 治한다

⑦ 陶氏導痰湯 去 枳殼하고 加 枳實 黃芩 黃連 白朮 瓜蒌仁 桔梗 人蔘 大棗 竹瀝 薑汁하여 痰迷心竅하여 如邪忤症을 治한다.(方藥合篇 補遺門)

⑧ 十味導痰湯 加 羌活 天麻 蝎尾하여 痰濕上昇 頭目不清함을 治한다.

(2) **二陳湯** 治 胃中寒濕 痰濁等症. 一切痰飲 惡心嘔吐 頭眩 心悸亢進 胃部비悶 消化不良 (一方 有烏梅 一方無 烏梅 生薑)

〈論曰〉此方은 能治實痰之標이나 不能治 虛痰之本이라 하고 消渴 吐血 孕婦는 禁은라 하니라

① 風痰 加 防風 桔梗 天南星 枳實하고

② 食積痰 · 加 香附子 15 山楂肉 神曲 各 08

③ 咳嗽痰盛 · 加 蒼朮 山藥 各10 砂仁 08, 黃痰에 天門冬 15, 黃芩 瓜蒌仁 枳實 桑白皮 梔子 杏仁 蘇子 各 08 竹瀝 03.

④ 燥痰 減 半夏 生薑 加 麥門冬 竹瀝하고

⑤ 熱痰 : 去 半夏 加 黃芩 貝母 枳實 桔梗 麥門冬 各 10, 梔子 08, 竹○ 03

⑥ 痰火 去 半夏 加 黃連 貝母 各 10, 竹瀝 03

⑦ 鬱痰 乾咳 去 半夏 加 貝母하고

⑧ 痰飲 胸膈間痛 有聲 : 蒼朮 瓜蒌仁 枳實 當歸 川芎 香附子 青皮 各 10, 砂仁 白芥子 木

□ 학 술

香 각 05.

⑨ 痰涎 全身 胸背脇 痛處者 - 香附子 當歸 黃芩 各 10, 白芥子 砂仁 木香 枳實 茴香 各 08

⑩ 痰역 加 砂仁 10

⑪ 酒痰 去 半夏 加 黃連 桔梗 貝母 葛根 各 15, 砂仁 烏梅 各 10

⑫ 濕痰 合 四物湯하고 또는 二陳湯에 加 二朮 香附子 桔梗 麥門冬 各 10 梔子 竹력 各 03

⑬ 濕痰流注하여 전신 有腫塊者 加 蒼朮 羌活 黃芩 防風 連翹 當歸 香附子 各 10

上部痛 加 川芎 15, 白芷 18

下部痛 · 加 黃栢 牛膝 各 08

塊痛 加 乳香 沒藥 各 03

頭頂痛 · 加 위령선 10

⑭ 多核 · 加 조각자

⑮ 左頭痛 · 合 四物湯 加 荊芥 薄荷 細辛 蔓荊子 柴胡 黃芩하고 氣鬱이면 交感丹을 兼服 한다

⑯ 婦女經病에 去 烏梅 加 大棗한다

⑰ 용도는 다음과 같이 廣範圍하다 陰虛惡寒 暖氣 乾嘔 惡心 痰嗽 寒嗽 食積 痰학 氣鬱 風寒失音 寒痰 小便赤白濁 大便痰泄 眩暈 偏頭痛 痰厥痛 眉陵骨痛 鼻塞鼻痛 痰熱牙齒痛 背痛 胸痛(蟲, 虛) 腰痛(痰 食) 麻木 狐疝 附骨疽 結核 帶濁(積痰) 惡阻 龜胸等症

⑱ 脾虛生痰 加 人蔘 白朮 芍藥 各 10, 枳實 砂仁 桔梗 各 08

胸背手足臂膊痛 上部者 加 防風 羌活 위령선 各 10 下部者 木通 防風 各 15, 牛膝 10

⑲ 冬季에는 烏頭 附子포 各 05한다

(3) 芎夏湯 逐水利飲에 通用한다 心悸 蓋血을 治한다. 水積 驚悸 痰飲 痰胸痛 痰腹痛 痰腰痛을 治한다

① 痰에 加 白芥子 香附子하고

② 冷痰에 加 乾薑 桂枝 茴香하고

③ 咳嗽에 加 貝母 杏仁한다

④ 정충이 極甚 加味溫痰湯類로 不效時 此方으로 有效하였다.(累驗)

⑤ 胃病에 腹鳴이 심하면 原方에 本方을 合方한다 例 正傳加味二陳湯合芎夏湯

(4) 通順散 (榮衛返魂湯 追風通氣湯) 治一切痰飲 및 痰腫, 痰飲流注 癰疽潰後痰盛 附骨疽를 治한다 또 順氣 勻血하고 流注 癰疽 發背 傷折 疝氣症도 治한다

① 宿痰失道하여 而成流注로 結聚腫硬이나 破之無膿하고 或如薄血하거나 或如清水乳汁하고 或如壤六破絮하거나 或如나력하고 或肉突出이나 惟覺咽喉痰如塞하여 作寒作熱이면 宜加 南星 半夏하고 如熱劇痰壅則 控涎丹하며 如遍身腫硬이 大如盂孟로 生於喉項 要處者는 難治니라

② 流注 加 獨活, 病在上 食後服 病在下 食前服

③ 潮熱 加升麻 蘇葉 服用後 熱不退者 加 乾葛, 頭痛 加 川芎 竝用 薑水煎.

無潮熱 - 加用 水酒上半煎, 表後에 宜服 溫平之藥 如 十宣 內補之屬. 不效 加附子 或服 四柱散

④ 發背 - 久不愈(因用涼藥太過者) 去 木通 小用 當歸 加 厚朴 陳皮, 劇則 用 對金飲子 加 白豆寇之類(腦發 背發 在上者 去 木通, 老人 虛弱者 尤不可用)

⑤ 內癰已成 - 與此方 加減 參用

⑥ 肺癰初覺 飲食有에 胸膈微痛 急須 祭脈 審其虛實. 虛則用此方 加 附子 若稍再作 卽用 十宣 內補之 實則 加大黃 略通之

⑦ 腸癰 與十宣散 相間服 竝加 忍冬藤(此藥 最治內癰) 審其虛實 或通 或補 補用 附者 通用 大黃 不明 虛實則 此方亦自能通順 十宣自能內補

⑧ 癰疽 氣血盛者 減 當歸 生痰 有於胃寒者 加 半夏 因 熱鬱而成風痰者 加 桔梗 竝用 生薑和水酒煎服

⑨ 脚氣 . 加 檳榔 木瓜 穿山甲 水煎服

⑩ 病人 泄瀉者 先用 止瀉藥後 止瀉後 服此藥

⑪ 經年 腰痛 加 비해 玄胡索 酒煎服

⑫ 婦人 氣疾 塊痛嘔逆 水漿不下 此藥爲丸 木香湯下

⑬ 尋常 折破損傷 在 頭傷則 去 木通 枳殼 加 川芎 陳皮 常用 丁香皮 蘇葉(能活血). 加 破故紙 五靈脂(能破宿血)

⑭ 打撲跌傷 胸背腰脇 四肢痰飲 瘀血疼痛하면 增 當歸 減 甘草 加 川芎 桔梗 各 40, 南星 桃仁 各 05한다

• 一般 加味法

① 忍冬藤을 加하면 甚妙하다

■ 학 술

- ② 虛에는 附子, 實에는 大黃을 加한다. 氣虛에는 人蔘을 加한다.
- ③ 痰에는 南星 半夏를 加한다
- ④ 腫硬에는 加 川芎 麻黃 蔥白 全蠍 穿山甲한다
- ⑤ 流注에는 獨活을 加한다.
- ⑥ 痰結에는 白芥子를 加한다
- ⑦ 冷에는 乾薑 附子를 加한다.

(5) 正傳加味二陳湯 은 醫學正傳의 內傷門에 나와있는 處方이다 原方에는 方中 神曲 麥芽는 別途로 作末하여 湯液에 調服하라고 되어 있다

治 食積 食痰, 導痰 補脾 消食 消積 行氣한다

大學病院에서는 本方을 다용도로 活用하고 있다

① 痰積 食積에 거의 通用方으로 사용한다 肩臂痛, 腹痛 脇痛, 原因不明의 腹內諸疾患 등에 運用한다

② 少陰人の 消化不良에 良方이라 하고 香砂平胃散과 合方하여 胃腸病의 諸 症狀에 활용하고 있다 太陰人도 좋다 하였다.

③ 太陰人인 경우 葛根 40, 黃芩 20을 加用하여 糖尿病者의 肝肥大症에 쓰면 血糖이 떨어진다 하였다

④ 抗結核劑 投與者로 消化不良이 오면 肝肥大症이 발생한다 이때는 靑皮를 加하여 쓰며 맥이 數하면 柴胡 05를 加한다

⑤ 胃潰瘍인 경우 赤石脂를 加하고

⑥ 胃酸過多인 경우 烏梅를 加한다 低酸症인 경우 烏梅를 加한다.

⑦ 上述한 氣痰症과 食痰症에 運用한다.

本稿中에서 引用한 處方은 모두 東醫寶鑑이나 方藥合篇等에 나와있는 處方으로 摘示하지 않으며 나와있지 않은 두 處方만을 소개한다

• 十味導痰湯 治 痰濕 上盛 頭目不清症. 導痰湯 加 羌活 天麻 蝎尾하고 臨服時에 入 雄黃末 少許 調服

• 祛濕痰湯 · 복령 膽南星 半夏 羌活 獨活 當歸 黃芩 蒼朮 白朮 陳皮 薄荷 香附子 防己 芫荽 甘草.

(全南 長城郡 北二面 T 92-9000~1)